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 총지신문



총기 51년  
2022년 11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6년 제 276 호

## 총기 51년 제 99회 추계 강공회 개최 신규 스승 사령장 및 법의 수여식 봉행



총기 51년 제 99회 추계 강공회가 10월19일부터 1박 2일 간 삼척에서 열렸다. 이번 강공회에서는 신규 스승 사령장 및 법의와 금가사 수여식을 함께 봉행했다. <관련기사 2면>

## ‘극락세계 왕생성불 발원합니다’

총기 51년 선대 열반스승 추선불사 봉행



종조 원정 대성사를 포함한 41명의 선대 스승들의 왕생성불을 추념하는 총기 51년 선대 열반스승 추선불사가 엄수됐다.

지난달 13일 여삼동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된 추선불사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중앙 종의회 의장 법상인 전수 등 중앙 종의회의원과 서울경인교구 스승 등이 참석했다. 불사 참석자들은 먼저 원정기념관을 방문해 종조 원정 대성사의 진영에 참배하고

식순에 따라 열반 스승에 대한 영식왕생성불과 유연영식왕생성불을 추설했다.

총무부장 룡경 정사 집공으로 봉행된 불사는 개식사, 대비로자 나불전 호념, 훈향정공, 무상계 독송, 유가삼밀과 광명진언, 실지정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추선불사는 한평생 수행과 교화로 정진하며, 전법과 종단 발전의 밑거름이 된 선대스승들의 왕생성불을 합동으로 추념하는 불사다.

## 2022년 한국밀교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2022년 한국밀교학회 추계 학술대회

불교에서 수행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 27일, 총지중 본산 대주제 ‘불교 수행’

이날 행사에는 총지중 통리원장 우인 정사와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를 중심으로 한국밀교학회 임원진 및 종단 스승들이 참석하였으며, 학술대회 주제 발표에 앞서 오전 10시 총지사 서원당에서 개회식으로 막을 열었다. 2면으로 이어짐

###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10월 29일 이태원의 비극적 참사 사고에 대해 불교총지중의 사부대중은 마음속 깊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유가족 분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부상자들이 하루 빨리 치유되어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불교총지중 사부대중 합장

### 종/조/법/어

무상 속에서 진리를 찾고 고통 속에서 안락을 찾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다.

### 지 면 안내

- 4면 한국밀교학회 특집 논문/화령 정사
- 5면 이달의 법문/시법사 해광 정사
- 9면 수행체험담/덕화사 조영미 교도

교훈  
지덕체를 겸비한  
의도자가 되자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동해인!

총립 동해중학교 개교 55주년  
1967년 11월 27일 설립

총지중 총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19-39(명륜동) Tel.051-555-4456



# 종령 예하, 엄송정진 수행 당부

## 신규 스승, 정각사 교화 스승으로 첫 발



제 99회 추계 강공회 입재식에서는 신규 스승 일진(一眞, 박진용)정사와 진여(眞如, 이현희)전수에 대해 법의와 금가사 및 사령장이 수여됐다.

법공 종령 예하는 전 스승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위승서를 전달하고 법의와 금가사를 수여했다. 이어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신규 스승들에게 사령장을 수여하고 정각사 교화 스승을 명했다.

일진 정사는 입사 선서를 통해 “계법을 준수하고, 스승을 공경하며 교법과 국법을 엄수하고, 보살의 행원으로 삼세중에 중생 제도를 버리지 아니하겠으니,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고 이를 극복하겠습니다.”고 엄숙히 맹세했다.

법공 종령 예하는 이 자리에서 “종단에

새 스승들의 임용은 소중하고 귀한 가족이 새롭게 탄생한 것과 같이 기쁜 일이다.”며, “우리 종단은 엄송이 으뜸가는 계행이니 엄송정진수행에 매진하고 중생교화에 앞장서 달라.”고 법어를 내렸다.

이어 종령 예하 강훈, 승단 총회, ‘승가 화합을 위한 조건’을 주제로 한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수칙 완화에 따라 2년 만에 기로 스승을 비롯한 전 스승이 참석하여 수행을 점검하고, 승단의 주요 의사를 결정했다.

또 이날 승단총회에서는 공석 중인 중앙종의회 의원 3명을 선출했다. 신임 종의원은 다음과 같다. △정원심 전수(운천사) △묘심해 전수(화음사) △정계월 전수(법황사)

신임 종의회 의원			
	정원심 전수	묘심해 전수	정계월 전수
	-----		
신규 스승			
	일진 정사	진여 전수	

# 신임 사감원장에 정각사 주교 법일 정사

## 10월 13일, 제163회 중앙총의회서 인준



왼쪽부터 총무부장 록경 정사, 종령 법공 예하, 사감원장 법일 정사, 통리원장 우인 정사, 재무부장 승원 정사

불교총지종 신임 사감원장에 법일 정사가 선출됐다.

중앙총의회(의장: 법상인 전수)는 지난 10월 13일 본산 통리원에서 제 163회 정기 회의를 열고 법일 정사를 신임 사감원장에 인준했다. 이에 따라 종령 법공 예하는 제99회 추계 강공회가 열린 10월 19일 입재에 앞서 통리원장을 비롯한 20대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법일 정사에게 사감원장 사령장을 수여했다.

법일 정사는 현재 부산 정각사 주교로 부산경남교구 교구장을 맡고 있다. 1994년 불교총지종에 입교하여 교무로 재직 중 2006년 중앙교육원 아사리과정을 수료하고 전법관정수계 수지 후 승직에 올랐다. 사회복지재단, 유지재단 이사아 제 10, 11대 중앙총의회의원, 12대 중앙총의회 부의장 등 종단 내 주요 소임을 두루 맡아왔다.

# 제 163회 중앙총의회 개최



제 163회 중앙총의회(의장: 법상인 전수)가 지난달 13일 본산 통리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임 사감원장에 정각사 주교 법일 정사를 인준했다. 또 임기가 만료되는 유지재단 이사에 법전사 주교 화령 정사, 종립 동해중학교 감사에 자석사 지현 전수를 새로 선임했다.

# 사회복지재단 제2차 정기 이사회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 제2차 정기 이사회가 지난달 17일 본산 통리원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김성규, 방귀희 이사에 대해 연임을 의결하였으며, 재단 사무국 2022년 추경예산과 2023년도 사업비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1면에서 이어짐 학회 자문인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개최 인사말을 통해 “이론 없는 실천, 실천 없는 이론은 무의미하며 둘의 조화 속에서 수행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로써 나오는 언어가 곧 진언이며 진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길”이라며 참된 진언행자로서의 수행을 강조했다.

이어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이렇게 좋은 가을 날 학술법회를 총지종에서 열고 함께 동참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밀교학회가 불교 밀교의 교리와 현재 각 종단에 필요한 내용을 주제로 심도 있는 학술법회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학회장 효명 정사도 개회사에서 “한국밀교학회는 회당사상, 밀교사상, 불교사상을 아우르며 모두가 함께하는 학술단체로서 앞으로도 학술연구발표활동, 밀교전법활동, 심리상담 등의 교화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총 7가지 주제로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지혜경 연구교수(연세대) △화령 정사(총지종) △이필원 교수(동국대 WISE캠퍼스) △박재용 전임연구원(동국대 불교학술원) △박서연 연구초빙교수(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김진무 연구교수(충남대 유학연구소) △강대현 연구교수(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본존다라니(옐로우) 13.5x17x3cm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보리수 108염주	편백염주 108염주	편보리수 108염주
₩ 50,000	₩ 40,000	₩ 10,000	₩ 29,000	₩ 3,000	₩ 40,000	₩ 10,000	₩ 40,000



# 제 37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

## 사부대중 1만여 명 운집, 한국불교 새로운 중흥 서원



제 37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법회가 지난달 5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봉행되었다. 조계종단의 단일후보로 추대되어 무투표 당선된 첫 사례인 만큼, 이날 취임법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하여 자리를 빛냈다.

총무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30여 종단 대표, 조계종 원로위원을 중심으로 한 조계종 중진스님들을 시작으로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

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요영 국회의장각화장 등 정계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비롯한 7대 종교대표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취임법회에서 진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1,700년 역사와 전통의 한국불교의 가치는 바로 요익중생이었다”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빛이 되어 소통과 신심의 포교로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생명에 대

한 무량한 자비심으로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중정 성과 대중사는 법어를 통해 진우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수행과 정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했다.

또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인사들과 정계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해 앞장서기를 당부했다. 김상미 기자

# 생존과 종족번식

지혜의눈

### 문명은 무분별한 욕망을 통제하도록 설계 종교는 고대 문명에서 통치 이데올로기로

인간이 생존과 종족번식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다른 생명들과 마찬가지로 본능에 속합니다. 인간은 보다 생존가능성을 높이고 종족번식을 용이하게 하는 과정에서 문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문명은 무분별하게 표출되는 욕망을 통제하도록 설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를 사람마다 내면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다름 아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규범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제하였던 것이지요. 종교는 고대 문명에서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억누르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초기 문명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본능적 욕구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생존을 위한 식량이 확보되는 가을에 통제를 풀고 욕망을 발산하는 추수감사제와 같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사실 인류의 문명은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사회 규범을 통해 욕망을 통제하고 사회 질서와 그로인한 사회 안정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스 문명에서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문명 이전의 세계를 상징한다면, 이성, 질서 등을 상징하는 아폴론은 문명을 상징합니다. 음악은 디오니소스에 속하는데 우리가 알고 조화를 꾀하는 음악은 원초적인 소리에 질서를 입힌 것에 해당합니다. 클래식 아폴론적이라면 헤비메탈은 디오니소스적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근대 문명에 뒤쳐진 원인을 공자의 사상에서 찾는 흐름이 일반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유교는 급속하게 쇠퇴하였습니다. 70년대까지도 유교적 전통이 비교적 살아있었지만 산업화와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급속한 서구화로 1980년대 이후로 점차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의무감에서 한글로 번역된 논어나 다른 유교 경전을 손에 잡아왔

지만 기억에 남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예악(禮樂)에 대해 다른 설명을 보면서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성립한 유학은 시·서·예·악·역·춘추(詩·書·禮·樂·易·春秋)의 육경(六經)이 성립하였습니다. 이 중 예악에서 악(樂)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경(詩經)에 실린 글은 노래 가사로 추정하는데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실려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무리지어 사는 사회현상은 일종의 떼지어 살기(grouping)인데 질서(order)가 필수요소로 해당합니다. 예(禮)는 기본적으로 질서유지를 위한 제도로 사회구성원을 역할(role)과 기능(function)으로 나눕니다. 그리스 문명의 아폴론적인 것과 닮아있습니다.

모든 문명은 인간의 생존과 종족번식을 위해 성립되었지만, 그 내용은 역설적으로 생존과 종족번식의 근원적 에너지인 욕망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두 요소간의 대립과 화해의 과정이 문명의 전개과정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예의 내용은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해왔고 변화해갈 것인데, 일반적으로 문명의 변화를 좇아가는 후행(後行)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禮)와 현재의 예(禮)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점차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악(樂)은 인간의 본능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문명초기에는 엄격한 규범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종족번식을 위한 당시로서는 최적의 방법이었고 그러한 규범을 인간에게 내면화시키는 역할을 종교가 담당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대 종교는 매우 잔인한 내용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 BBS불교방송 새 이사장에 덕문스님

재단법인 불교방송 이사회는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제 116차 이사회를 열고 덕문 스님을 만장일치로 제 8대 이사장에 선출했다.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방송이 가야할 길을 명확하게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한국 불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불교방송에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에는 총무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덕문 스님 외 정문 스님, 원종스님, 수불스님, 진각종 능원 정사 등 14명이 참석했다.

## 내마음의 등불

시법사 해광 정사

### 변천(變遷)은 가상, 불변(不變)은 실상

만상은 무상하여 잘나에도 변하고 있다.  
우선 자기 자신도 십년 전의 자기를 볼 수 없고, 작년의 자기를 만날 수 없고, 어제의 자기를 만날 수 없다.  
마음과 행동도 자꾸만 변하므로 아침의 나는 벌써 저녁의 내가 아니다.  
이것이 무아(無我)요, 공(空)이다. 그러나 실상은 불변이요, 가상만이 변한다.

(중조법설집 190p 제3장 잠언편 37)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시법사 해광 정사님은 자서사 도우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 마음청정 지구청정

Pure Mind. Pure Earth

## 『기후 환경 위기 극복 불자행동 캠페인』 “생활속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 비움

Simple Life

소욕지족 少欲知足 운동  
물질은 소박하게 마음은 풍요롭게

- 적게 소유하며 검소한 삶을 통해 마음의 풍요를 누리겠습니다. 적게 구입하고, 오래쓰며, 윤리적 소비로 살기
- 자연과 이웃 덕분에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연과 이웃의 은혜 알고, 감사와 고마움으로 배려하며 살기
- 본래 내 것은 없음을 알고, 나누고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무소유와 나눔, 자비의 마음으로 돌봄과 배려의 삶을 살기
- 위가 아니라 옹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이웃과 협동하며 공동체로 살기

### 바꿈

Changing Life

수처작주 隨處作主 운동  
나를 바꿔 세상을 바꾼다

-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돌아보며 천천히 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화를 다스리며 수행과 평화명상 생활화하기
- 쓰레기 제로의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발우공양, 일회용품 사용금지, 비닐 플라스틱 사용절제, 농어촌 쓰레기줍기
-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전기자동차사용하기
- 채식위주의 식사와 발우공양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장려하며 소식은 빈그릇운동 실천하기

### 살림

Saving Life

생명방생 生命放生 운동  
우리가 살리면 우리도 살린다

- 동물을 보호하고 살리며, 생명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현대적 방생실천, 살처분반대, 동물권옹호, 미래세대권리 옹호하기
-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풍요로운 자연을 만들겠습니다. 나이만큼 나무심기, 산간제도 부활, 사찰숲가꾸기
- 농업을 지키고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지원지원, 텃밭가꾸기, 귀농귀촌지원, 농촌공동체만들기
- 개발보다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을 우선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금지, 자연서식지 습지 보호, 생태마과기업 투자철회

### 미래

For the Future

자업자득 自業自得 운동  
미래세대에게 피해 물려주지 않기

- 환경과 생태문제를 배우고 이웃과 더불어 실천합니다. 종단, 교구별 환경위원회 설치, 환경교육 실시, 조직만들고 실천하기
-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사찰과 불교시설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이용, 넷제로(Net-Zero)실천
- 지역적으로 실천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역단체와 협력하고 지역순환사회만들기, 전자구적인 문제해결에 참여
- 가능한 이들과 난민,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난민지원, 공정무역,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

-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관음종, 한국불교태고종, 불교총지중, 대한불교대각종, 대한불교보문종, 재대한불교원효종, 재대한불교일부선종
- 대한불교총화중, 대한불교삼보종, 대한불교대승종, 대한불교용화중, 한국불교미륵종, 사)대승불교본원중, 사)대한불교원효종, 한국불교여래종, 보국불교염불중, 사)대한불교조동종
- 사)대한불교법상중, 재)한국불교법문중, 대한불교정토종, 대한불교진언종, 대한불교화엄종, 대한불교법연중, 대한불교미타종, 대한불교일승중, 대한불교법화중, 한국대중불교불이중



# 즉신성불(卽身成佛)의 의미와 원리에 대한 고찰

## 『大日經』과 『大日經疏』를 중심으로

화령 정사 (법천사 주교 철학박사)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성불이다. 불교의 전 역사를 통하여 보면 성불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지만 결국은 성불의 목적도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이고 해탈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성불이라고 정의 되어왔다. 성불은 또한 완전한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완전한 깨달음이 성불이고 그 성불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방법론이 지난날의 불교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성불은

내었다. 이러한 대일여래의 가치를 통하여 삼밀행을 완성할 때에 우주 법계의 진리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말하자면 보리심을 받고 삼밀행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들여다 볼 때에[如實知自心] 우주 법계의 본질을 통찰하게 되고 그 순간 즉신성불이 이루어진다고 설하고 있다. 중생의 자심의 실상이 보리이고 일체지 지이며 아늑다라삼막삼보리이고 무상정변 지이며 무상정등각이기 때문이다. 왜냐하

그러한 수행체계를 나타내는 것이 법신세계를 축약한 만다라의 관상법(觀想法)이며, 진언과 종자(種子), 삼매야행의 상징성에 의지하여 법신의 세계를 파악하려는 삼밀행이다. 그 중에서도 밀교의 수행체계의 기본을 이루며, 또한 그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아자관과 오자염신관, 그리고 오상성신관 등이 있다. 이러한 수행법은 곧 비로자나불의 법신세계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전신적(全身的)으로 체득하여 즉신성불에

### 삼밀행으로 대일여래 대지혜를 증득, 즉신성불(卽身成佛) 아자관과, 오자염신관, 오상성신관 등은 밀교 독자 수행법

업장이 두터운 우리 중생들로서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불교 역사를 둘러보아도 석존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을 여신 분이 과연 몇이나 있었는가? 이리하여 나온 것이 삼검성불이라는 것이다. 중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삼검이라는 긴 시간을 흘러야 겨우 성불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곧 평범한 중생이 도달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성불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밀교에서는 이러한 생각은 중생들의 잘못된 생각임을 지적하면서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즉신성불(卽身成佛)을 내세운다. 먼저 우주의 진리 자체이고 법계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일여래를 내세우고 거기에 따른 수많은 불보살과 명왕, 천, 심지어는 등류법신(等流法身)인 미물들에게도 법신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깨달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변화법신과 실상지신(實相智身)의 개념으로써 대일여래를 인격화하여 우리들에게 직접 진리를 설법하고 진리를 보여주며 무언의 설법으로 진리를 전해주는 진정한 법신불의 모습을 그려

면 중생의 마음의 실상이 법계이고 그것은 본불생인 법신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밀교에서는 수행의 궁극을 삼밀가지(三密加持)에 의한 대일여래와의 합일에 두고 있다. 즉 삼밀가지에 의하여 대일여래의 지혜를 획득할 때 그것이 곧 성불이며 보리를 완성하는 것이 된다. 물론 성불 이후에 중생제도의 여러 가지 방편을 펼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우선 대일여래의 대지혜를 증득하고 생사를 초월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만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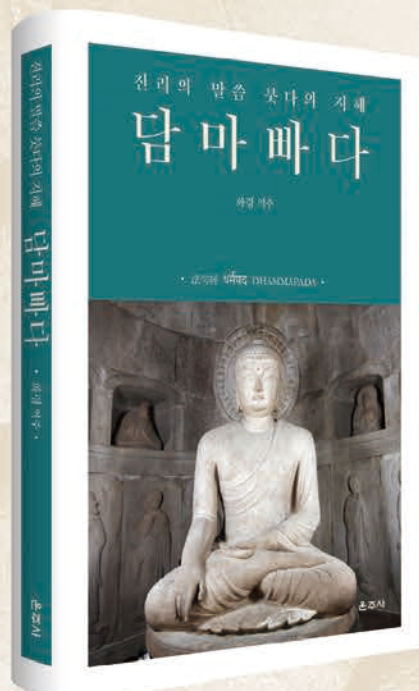
대일여래, 즉 비로자나불의 법신과 합하여 무상의 진리를 체득하고 성불에 이르기 위하여 밀교에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것도 수습에 걸치는 난행, 고행을 통한 성불이 아니라 진언문에 의한 삼밀행(三密行)의 완성으로 비로자나불과 일체가 됨으로써 즉신성불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즉신성불에 이르는 구체적인 수행체계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또한 밀교의 특색이며 수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르기 위한 밀교 독자의 수행법이다. 물론 밀교의 수행체계상에서는 이러한 관법을 행하기 위한 예비절차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삼검성불을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무명의 두께로 파악하여 일시에 타파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 것은 밀교만의 파격적인 통찰이며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방편이 대일여래의 가치에 의한 삼밀수행의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설정되어 있다. 밀교의 삼밀수행을 통하여 100%의 즉신성불은 어렵더라도 몇 %의 즉신성불이라도 달성될 수 있다면 큰 성공이 아니겠는가? 밀교는 이론만이 아닌 실 수행을 통한 전신적인 체득을 중요시한다. 삼밀수행에 의하여 완벽한 성불은 아닐지라도 체험을 통하여 우주 법계의 비밀의 한 자락을 엿본 밀교가들은 즉신성불의 의미에 대해 더욱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불은 삼검성불이 아니라 즉신성불이어야 하며 그것은 자력과 타력을 아우르는 삼밀가지 수행에 의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트림으로써 조속히 도달되어 질 수 있다.

2022년 추계 한국밀교학회 학술대회가 '불교의 수행'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7일 종단 역삼동 본산에서 개최됐다. 밀교학 분야에 대표 석학들이 발표자와 사회자, 논평자로 참석해 한국 정통 밀교학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대회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날 대회에서 본종의 화령 정사(법천사 주교, 철학박사)는 '즉신성불(卽身成佛)의 의미와 원리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밀교의 궁극적 목적인 즉신성불과 이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법에 대해 간결하고도 확고한 내용으로 참석자들에게 많은 주목과 호평을 받았다. 이번 대회를 기념해 화령 정사 논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시대를 초월하고 종교를 뛰어넘어 전 인류에게 사랑 받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음에 가깝게,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 담마빠다 法句經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인 『법구경』의 팔리어 원본을 화령 정사가 쉽고도 간결한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출가 수행자는 물론 모든 불자와 일반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주옥같은 붓다의 말씀이 매 구절마다 심금을 울린다.

고해를 건너는 소중한 뗏목이며 사바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담마빠다』! 이천만 불자들의 필독서!

화령 역주/국판/양장/192쪽/값 14,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 고민과 걱정이 있다면 부처님께 여쭙어 보세요. 해결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해광 정사(시법사)

사람들이 태어나 가족이 건강하고, 원하는 대로 되고 행복하게 산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고민과 걱정이 들어옵니다. 가족문제, 연인문제, 진로와 진학문제, 회사의 매출과 진급 등 문제가 많습니다.

좋고 비싼 집에 살아서 부(富)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명품 가방을 들여야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원하는 회사의 자리와 승진을 바랍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경쟁을 유발시킵니다. 매출과 실적은 성과로 이어지고, 순위를 가려냅니다.

정직하고 순리와 규칙대로 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다통과 시기, 질투, 오해, 배신, 패배를 불러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려운 국어,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답답했지만, 해답이 있으므로 그 답을 보면 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생활은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으로 걱정에 쌓여 어렵고 힘듭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해답도 없습니다.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발전해가고 싶은 것, 개인의 욕심이든 바람이든 언제나 고민과 걱정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고민을 풀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갖거나, 절대자에게 맹종하게 됩니다.

내 의지를 부처님께 귀의하여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고민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살아온 경험의 토대, 어른들의 조언, 길을 알려주는 책, 부모, 멘토, 스승, 선배들의 조언과 방법을 듣습니다. 하지만 최종결론은 누가 결정하나요?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 여쭙어 보세요. 질문을 하십시오.”

불교총전을 보면 40쪽 8번과 41쪽 11번, 13번의 첫 구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입니다. 불교총전에서 많이 나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궁금한 사항을 부처님께 질문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총전 263쪽 1번을 보면, 문수사리보살이 중생들이 허망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처럼 많은 경전은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승이취 육바라밀다경, 금강경에서도 보살마하살이 질문을 하면, 부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을 들으면 우리들은 궁금증이 풀어지고, 해답을 얻어 기쁨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풀어야 할 걱정과 문제가 있다면 부처님께 여쭙고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교도님들도 부처님께 질문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도 항상 질문을 하셨습니다. 석가모니가 어렸을 때 밭을 가는 농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쟁기 끝에 뒤집힌 흙더미에서 벌레가 나오니까 새는 쏠살같이 벌레를 낚아챘습니다.

“어째서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않는가?” 석가모니가 태자로 있을 때 가비라성의 밖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동문 밖에서는 노인을, 남문 밖에서는 병든 사람, 서문 밖에서는 죽은 사람, 북문 밖에서는 승려를 만나, 인생의 네 가지 괴로운인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먹고 살기보다 근본적인 자신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생로병사를 떠나 괴로움과 번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해탈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은 왜 생기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완전히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출가를 결심합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고행을 합니다. 과연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우리들처럼 번뇌에 휩

싸여 이 생각 저 생각 번뇌에 빠져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했을까요?

문제해결을 위해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왜? 라는 의문을 생각하겠습니다.

1943년에 세워진 미국 제퍼슨기념관이 있다. 어느 때부터 기념관 바닥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기념관장은 원인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바닥에 묻어 있는 비둘기 배설물을 제거하기 위해 독성이 강한 세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매년 훼손으로 보수작업비, 청소용역비는 늘어나고, 관광객 불편도 컸다. 이유는 비둘기가 거미줄을 먹기 위해 왔고, 거미는 나방을 먹기 위해 거미줄을 쳤으며, 나방은 기념관의 불빛에 모여 들었다. 기념관의 외등은 다른 건물보다 먼저 켜다는 사실을 알은 후 이제 다른 건물보다 불을 늦게 켜다. 문제는 해결되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후 중생들에게 제일 먼저 설법한 것은 사성제와 12연기입니다. 고집멸도(苦集滅道)의 고는 중생의 인생은 괴로움이며, 그 괴로움의 원인은 욕망의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욕망의 집착을 끊기 위해서 팔정도(八正道)를 닦으면 해탈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중생의 근본적인 괴로움, 늙고 죽는 것은 12연기로 알려 주셨습니다. 무명(無明) → 행(行) → 식(識) → 명색(名色) → 육입(六入) → 촉(觸) → 수(受) → 애(愛) → 취(取) → 유(有) → 생(生) → 노사(老死)의 윤회의 사슬입니다. 근본은 무명, 무지와 연기로 고뇌와 불행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질문은 자기 위주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엉뚱한 생각의 결론이 납니다. 질문이 변하지 않으면 늘 같은 대답을 얻을 것입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어느 남자가 15년 동안 사설감옥에 갇혀 군만두만 먹었다. 그 남자는 나가기만 하면 복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풀려난 후 가둔 사람은 갇힌 사람에게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왜 가두었을까? 가 아니라 왜 풀어주었을까.’란 말이야.”

우리들도 늘 같은 답이 나오는 것은 질문이 지금까지의 내 성격과 지식으로 같은 질문을 하므로 원하는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을 할 때 주의할 것은 불만, 불평의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환경, 상황을 어떻게 하면 넘어가고 극복할 것인가를 여쭙어야 하는데, 남부터 욕하고 금 수저 아닌 것에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므로 내 스스로 이미 답을 내리지 마십시오. 사회 환경, 경제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내가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움직여야 한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십시오. 내 성격과 경험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답은 그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며,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나라의 수도를 물으면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내가 모를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새로운 답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처님께 매일 경전을 읽고, 참회와 절을 합니다. 부처님께 108염주를 굴리면서 진언염송을 합니다. 염송을 할 때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처님께 여쭙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분명히 해답을 주십니다.

“부처님 저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해결하기 위하여 가르침을 주십시오.”

믿고 순수하게 하얀 종이 위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가피력을 주시고 인연을 주십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부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짤’하고 나타나서 돈을 주겠습니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과 사람을 인연으로 만들어 돈이 들어오게끔 하십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력과 인연입니다. 교도님들 서원이 이루어지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옴마니반메흠.

부처님의 제자들은 모두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여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질문이 많이 나오고 질문을 묻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미란다 왕문경』입니다. ‘미란다평화’는 ‘마란다의 질문’이라는 뜻이고, 한역은 나선비구경(那先比丘經)입니다. 기원전 2세기 후반 서북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밀린다(milinda) 왕과 인도의 비구 나가세나(nagasena)가 불교에 대해 문답을 나눈 경입니다. 불교총전 263쪽부터 271쪽 사이의 『미란다 왕문경』의 일부를 읽어보시기를 강권합니다.



##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13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중 창중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만주족의 기본적인 신앙은 샤머니즘이다. 무당이 하늘의 뜻을 묻고 전하는 원초적인 정령신앙이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이는 우리 민족의 무천신앙과도 일맥상통한다. 하얼빈은 서양과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터라 개신교와 러시아 정교, 가톨릭이 터를 잡고 있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하얼빈에 유대인 거주구역이 있어서 동양에서는 보기 드물게 유대교의 활동도 활발했다.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천리교(天理教), 금광교(金光教), 어악교(御嶽教) 등 교도(神道) 계열 종교가 만주에 들어와 일본인 사이에서 창궐했다. 불교 또한 일본의 균승과 거류민을 따라 흘러들어와 진종(眞宗), 정토종(淨土宗), 일련종(日蓮宗), 진언종(眞言宗)이 활발하게 포교와 전법을 펼치고 있었다. 비록 제국주의적인 색채를 짙게 띠고 있었지만, 하얼빈에 진출한 일본 종단들을 통해 대성사는 다양한 경전을 접하고 교리와 수행 방법을 공부할 수 있었다.

조선인들 사이에는 단군을 신앙하는 대종교(大宗教)와 동학계열의 천도교, 시천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천도교에서 파생한 원종교(元宗教)는 조선을 벗어나 만주에서 더 크게 교세를 일으키고 있었다.

만주 땅에서 종교는 때때로 어렵고 황량한 시대를 건너는 길잡이가 되기도 했고, 민족의 각성으로 항일의 불씨를 살리는 독립운동의 기반이 될 때도 있었다. 여타의 종교의 의미와 역할이 더 크게 와 닿는 시절이 열리고 있었다. 시대의 모순을 종교라는 방식으로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하얼빈 일대에서도 활발했다.

반면 공산주의자들의 반종교 움직임도 거



1944년 귀국 전 하얼빈에서 동료들과 맨 오른쪽 대성사

“대성사는 극락사에 들러 관세음보살 전에  
향 하나를 피워 올리고, 후일 진리로  
세상을 밝힐 발원 하나를 세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 일어났다. 유물론을 기반으로 ‘종교는 사회의 해악이며 인민의 정신을 마취하는 아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종교를 미신으로 선전하고 과학의 적으로 돌리는 선동을 펼쳤다. 이런 깊은 혼돈 속에서 대성사는 과학과 종교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나갔다.

대성사는 모친의 영향으로 불심의 심지를 갖고 있었는데, 주하현에서 정미소를 하던

시절에는 자신과 시대를 돌아보며 불교를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다. 하얼빈에서 가장 큰 사찰은 극락사(極樂寺, 지러쓰)로 천태종 제43대 여허 법사가 1924년에 창건했다. 흑룡강성에서 가장 큰 사찰로 하얼빈 지역과 인근 불자들의 불심의 중심 역할을 해낸 곳이다. 대성사가 근무했던 하얼빈 지방법원과도 가까운 곳에 있었다. 아마도 그 무렵 어떤 때 대성사는 극락사에 들러 관세음보살 전에 향 하나를 피워 올리고, 후일 진

# 혼돈 속에서 과학과 종교를 깊이 성찰하다

리로 세상을 밝힐 발원 하나를 세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만주지역은 각 종교가 포교에 전력하던 곳이었다. 기독교와 불교, 민족종교들이 새로운 기반을 닦기 위해 경쟁적으로 포교를 하고 공동체를 조직하고 있었다. 불교는 인적 조직을 만드는 데는 상대적으로 취약했지만, 일본 종단을 중심으로 경전을 보급하는 문서포교가 활발했다. 특히 진종과 진언종은 참회법회와 진언수행을 활발히 펼치고 있었다.

대성사에게 만주 하얼빈과 그 인근에서 보낸 이 시절은 과학과 종교, 사상과 실천을 탐구하고 내적인 세계를 성찰하는 인연을 지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세상이 난세가 될수록 구세의 인연은 더 깊어지는 법이다.

제국주의의 오만과 무분별한 탐욕은 결국 국 패망을 향해 치달았다. 하얼빈과 주하현은 소련과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다. 대성사는 단파라디오를 통해 늘 연합군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일본군의 선전과 달리 곳곳에서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파를 통해 전해졌다.

일본과 함께 주축국인 독일과 이탈리아는 유럽전선에서 연합군에게 밀리고 있었다. 일본군은 남방전선과 남태평양에서 미군에 의해 보급로가 차단되고 진격을 중단했다. 곳곳의 전선에서 밀리고, 힘겨운 전황은 승전보보다는 패전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왔다.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게 된다. 식량 특히 쌀은 전시물자로 간주되어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식량 배급이 실시됐고, 대성사는 주하현 미곡배급조합을 책임지는 이사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잠깐 흑심을 품으면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늘 공평무사하고 공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일했기에 배급을 둘러싼 불평은 생기지 않았다. 귀국할 때까지 주하현 미곡조합과 배급조합 이사장 자리를 이견 없이 맡을 수 있었다.

전쟁 상황을 예민하게 지켜보던 대성사는 만주를 떠나야 할 시간이 됐음을 알았다. 라디오 전파를 통해 전해오는 소식이 급박했기 때문이다.

“1944년 독일군은 레닌그라드 포위전에서 패배하고 밀리기 시작했다. 연합군은 로마 인근 안치오 해안에 5만 명의 병력을 상륙시켰다. 미국 공군이 독일 베를린 공습을 시작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독일군은 결정적인 패전을 경험했다. 6월이 되자 미군과 일본군이 필리핀 인근에서 해전을 시작했고 일본군의 열세가 계속됐다. 유럽 곳곳이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대성사는 이 전쟁이 곧 일본군과 주축국의 패전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부부는 앞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제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조선이 해방될 날이 곧 올 것이오.”

금강관이 되물었다.

“일본이 계속 전쟁에서 이긴다고 합니다.”

“그건 그들의 거짓 선전이오. 곳곳의 전투에서 지고 있고 전쟁은 곧 끝나게 될 것이오. 특히 이 지역에 소련군이 밀려오면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 일어날 수도 있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이곳 일을 정리하고 밀양으로 돌아갑시다.”

“정미소와 조합일은 어떻게 하시려고……?”

“전세가 기울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조용히 알리고 있습니다. 조합일은 후임자를 찾도록 하소.”

가족의 안전에 비하면 재산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황이 돌아가는 소식을 대충 전하고 각자 처지에 따라 상황 파악을 잘 하라 당부했다.

정미소 지분은 투자한 인척에게 넘겼다. 그에게도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하라는 당부를 남겼다.

관성사 교도 광고



##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 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 요 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 요 일 9시 30분 ~ 14시  
점 심 시 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 본산 총지사 설단불사 봉행, 회사 교도 뜻 담긴 '성불탑' 세워

**총지종의 역사**

02. 정통밀교종단 '총지종' 창종  
총지종 총본산 '총지사' 건립④

1978년 2월 1일 부산시 남구 대관2동에 자재서원당(주교 하정 정사, 부주교 시각화 전수)을 개설하고, 3월 30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6동에 일광서원당(주교 정원각 전수)을 개설했다.

해탈서원당은 4월 15일 청주시 수동 117-1의 대지와 건물 2개동을 매입하여 혜정사로 개칭하고, 6월 22일 울산시 신정동에 정경서원당(주교 총지행 전수)을 개설했다. 8월 18일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64-5의 건물을 매입하여 흥포서원당을 관음사로 개칭하고 불단이설불사를 거행한 후 건물 신축에 들어갔다.

응불서원당은 밀양군 상동면 금산리 886번지의 대지와 건물을 매입, 신축하여 11월 23일 일삼사 현공불사를 거행했고, 유가서원당은 부산시 남구 광안동 1014-10의 대지와 건물을 매입, 수리하여 자석사로 개칭하고 12월 27일 불단이설불사를 거행했다.

1979년 4월 19일 관음서원당은 대전시 삼성동 276-13 대지와 건물을 매입, 수리하고 만보사 불단이설불사를 거행했다. 4월 30일 정경서원당은 울산시 신정동으로 확장 이전하여 불단이설불사를 거행했으며, 사원부지가 협소해진 밀인사는 6월 1일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72-42의 대지와 한옥 건물을 매입, 수리하여 이전했다.

1977년 10월에 신축한 정각사가 밀려오는 교도를 수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1979년 8월 8일 인접한 명륜동 8-15의 대지와 건물을 추가 매입했으며, 육합서원당은 12월 10일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210-655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신축을 시작했다.



서울 역삼동 총본산 총지사 건립 중 원정 대성사와 스승, 교도들 모습



1978년 불교총지종 총본산 총지사 준공 당시 전경. 지하 1층, 지상 3층 471평 규모로 건설됐다.

## 1974년부터 1980년까지 교화 도량 27개 사원, 신축만 20곳

### 1978년, 역삼동 471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총본산 준공

1980년 3월 14일 자재서원당은 부산시 동구 수정동으로 이전하고, 이화서원당은 부산시 중구 보수동 1가 40번지의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성화사로 개칭하고 3월 19일 불단이설불사를 거행했다.

훈정서원당은 5월 13일 전주시 고사동 2가 324-15의 대지와 건물을 매입, 수리하여 흥국사로 개칭하고, 육합서원당은 신축을 마무리하여 8월 13일 관성사 불단이설불사를 거행했다.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서울에 총본산 총지사를 비롯해 2개 서원당, 부산에 3개 서원당, 대전, 울산, 마산에 각각 1개 서원당이 새롭게 문을 열어 총지종의 교화도량은 총 27개 사원을 갖췄다. 물밑듯이 몰려오는 교도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증개축하거나 신축한 곳만 20

개 사원에 달해 안정적인 교화기반을 다졌다. 대성사의 예지력과 교화원력, 그리고 총지종의 주인이라는 신념으로 교화와 종단 발전에 힘을 쏟은 교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국 각지에 사원을 세우는 가운데 총지종 총본산 건설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종단현판을 건 성북선교부는 건물이 좁고 종교적인 용도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1975년 새해불공에 '총지종 총본산 건설 원만성취'를 서원사항으로 추가하여 종단 원력사업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3월 28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20-2 대지 382평을 매입했다. 당시에는 주변이 모두 논밭이고 황량했지만 대성사는 이곳이 한국 밀교의 미래를 열 도량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1977년 5월 10일 인접한 역삼동 700구획의 1호대지 279평을 추가 매입하여 5월 31일 본산 건축 기공식을 거행했다.

막상 건축을 시작하자 건물터 곳곳에서 물이 솟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성사는 이곳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건축을 독려하고 불공을 올렸다. 종단의 중요 사안에 대해 항상 진언염송불공에 의한 내증의 결과를 참고해온 대성사는 총지사 건축과정에서 부딪힌 여러 난관들을 회사법과 염송정진으로 받아들이고 지혜로써 헤쳐 나갔다.

불공 중에 오는 마장을 현실로써 막지도 않고 만약에 진리로써 막지도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는가? (중략) 마장 있는 그때마다 육행약을 쓰게 되면 끊는 물에 얼음같이 마장 없어지느니라. (중략) 지혜가 어두

운 이는 마장이라고 말할 것이요, 지혜가 밝은 이는 법문이라고 말한다. 『종조법설집』 '불공' 편 중

난공사라고 했던 건축과정이 점차 순조로워졌다. 10월 27일 총본산 건물 옥탑 위에 대일여래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만한 본성 및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상징하는 원상을 세우고 11월 4일 본관 건물 상량식을 거행했다.

12월 16일 총본산 건설을 위해 회사한 교도의 뜻을 기념하기 위해 정원에 성불탑을 건립하고 12월 27일 총본산 중앙사원 총지사의 2층 서원당에 불단을 개설했다.

1978년 1월 19일 지하 1층, 지상 3층, 471평 규모의 총본산 건축공사의 준공을 마치고 다음날 통리원의 서류와 경전, 비품 일체를 총지사로 이전했다.

4월 18일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총본산 총지사의 설단불사를 봉행함으로써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누구나 언제든 함께할 수 있는 총지종의 중심도량이 진리의 문을 열었다.

##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회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 죄수행을 발전시킨 여성 요기니 마칙 랍된

7세기 『대일경』의 출현으로부터 비롯된 인도밀교의 발흥은 역사·문화·문학·전통의 시간보다 현실의 진리를 직관하는 현재와 실용에 집중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불교사상 가장 많은 여성수행자의 흔적이 전해지게 된 내력과 유관하다. 인도, 티벳, 몽골을 아우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름을 전하지 않는 여성성취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마칙랍된(ma gcig labs sgron, 1055-1149)이 있다. 마칙랍된이 유명한 것은 그녀가 전한 요기니계의 죄(Chod)수행 때문이다. 죄수행의 연원은 『반야경』에서 시작되었다. 반야의 지혜는 해학으로서 듣고 청문하는 과정에서 공성을 결탁한다. 인도에서는 일찍이 반야의 해학에 대해 그 실천수행으로서 여러 방편들이 모색되었다. 유가유식의 『현관장엄론』이나 밀교경전인 『이취경』, 그리고 문수보살과 관련된 많은 의례들이 그런 류이다. 특히 밀교경계 가운데 『문수진실명의경』이라든가 『야만타까판뜨라』는 모두 반야지의 수습에서 발전하고 유행한 것이다.

마칙랍된의 알룸계곡의 동쪽지역 초메, 혹은 계랍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마칙랍된과 관련한 많은 전설들이 있다. 그녀를 빠드마삼바와와 인연이 깊은 예세 초젤의 화신으로 여기거나,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섰다는 것이 그렇다. 아버지는 최기 다와이고 어머니는 퉁모 불잠이라고 하였다. 형제자매가 있었다. 마칙은 일찍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어 3살 때부터 진언을 외웠다고 하며, 8살 때 『8천승반야경』을 외웠다. 학승인 계세 아편의 추천으로 다빠온췌(1012-1090)의 제자가 되어 13살 때 반야의 교학을 익혀 반야의 견해가 다른 승려들을 넘었다고 전한다.

스승 다빠온췌는 그녀에게 반야교학에 대해 연구케 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다음 스승의 추천으로 표핀 소남 라마를 만나 밀교를 공부하게 하였다. 그녀가 20세가 되었을 때 소남 라마는 예강와의 사원에서 많은 관정을 수여했는데 여기서 마칙랍된은 보신을 성취하고, 와즈라바라히의 오불, 비밀



유가진언을 갖추어 현밀에 대해 고루 통달하게 되었다. 마칙랍된에게 보다 큰 성취를 이루게 한 것은 담빠 상계를 만나 님마빠의 족첸을 전수받은 것과 23세 인도의 수행자 퇴빠바드라를 만난 것이다. 그녀는 퇴빠바드라와 세속적인 결혼도 하고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다고 전하지만 자식들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마칙랍된은 37세 머리를 삭발하고 상리

강말산의 토굴로 거처를 옮겼다.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녀의 명성은 인도에도 알려져 많은 인도인 제자들이 티벳을 향했다. 그녀 주변에는 5천의 제자와 50만의 추종자들이 늘 있었다. 그녀의 전기에는, “모든 법은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다시 티벳에서 번성하였다. 오직 마칙의 가르침은 티벳에서 시작되어 훗날 인도로 전해져 거기서 실천되었다”라고 하였다.

“모든 법은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다시 티벳에서 번성하였다. 오직 마칙의 가르침은 티벳에서 시작되어 훗날 인도로 전해져 거기서 실천되었다.”

- 마칙 랍된 전기 중에서

그녀의 스승이었던 담빠 상계는 티벳불교 초기종파인 시제파의 종조로 추앙받으며, 마칙에게 죄수행을 전했다. 죄수행은 인도에 연원을 두지만 죄수행을 대성한 것은 마칙랍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녀는 99세 입적했는데 이후 그녀가 남긴 관련 저술들은 인도, 티벳, 네팔, 몽골 등지에서 번역되고 그녀가 전한 님마의 수행과 죄수행은 지금도 번성하여 서구에서도 크게 유행하고 있다. 마칙랍된이 남긴 가르침 가운데 마장을 물리치는 죄수행의 독특한 면모가 있다. 불교를 수행하다 보면 누구나 마장과 마주할 때가 있다. 그것은 의식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고, 때로는 외연에 의해 영향을 주고 현실의 오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의식과 외적 경험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같은 뿌리일 수 밖에 없다. 마칙랍된에게 강빠 목상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스승에게 마장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녀는 말하길, “제자여 듣거라, 마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마장이라고 해서 실제 검거나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보는 사람으

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다. 마귀는 해탈을 방해하는 장애, 모든 것을 가리킨다. 무엇보다 고착된 자아보다 더 큰 마장은 없다. 자아에 대한 고착을 잘라낼 때까지 모든 악들은 항상 입을 벌리고 기다린다. 이 때문에 고정도니 자아라를 악마를 적대할 기술적 방편들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국에서 반야지의 결탁은 주로 『반야심경』과 『금강경』에 집중되고 수습은 경전의 염송이나, 참선을 통해 실수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를 자신의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반야경』의 지혜는 무아의 공성을 결탁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다양한 의식의 배경과 근기의 차이는 결국 다양한 방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인도밀교의 교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7세기 이후 후기대승시대 5백년을 통해 논리학과 밀교의 양 수레바퀴가 인도 불교를 주도한 역사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마칙랍된의 전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동	안	거		발	레		자	비	심
상		지	중	해			갈		장
이			국		순	망	치	한	
몽	유	병			애			치	약
		인	과	응	보				사
태	평	양		급		난		부	여
조		요		실	크	로	드		래
왕			공		립			성	불
건	축		주			성	판	악	
	생	노	병	사		계		설	법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고도수행체험담 ①

# 불공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덕화사 조영미 교도



저는 일흔일곱 나이의 덕화사 교도 조영미입니다. 제가 총지종과 인연을 맺어 부처님의 가피로 행복하게 살아온 날들이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저의 얘기는 어떤 체험담이랄까, 거짓말도 못하고 더하고 빼지도 못하는 제가 직접 경험한 저의 제도 당시 일입니다.

저는 스물다섯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을 오니 어른들이 벽에 무엇인가를 모시고 아침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제단에는 조그만 신발과 예쁜 바가 옷, 물 떠놓는 그릇, 향피우는 초 등이 있었지요. 그 당시는 어른들이 하나씩 그러려니 하고 따랐습니다.

손위 동서가 아프다고 어느 날은 어른들이 곳을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큰 병원도 없었고 곳을 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고 하던 시절, 무당이 밤새 곳을 해도 이윽도 뭐라 안하는 때였죠. 곳을 하는 자리에 있던 형님은 말문이 트여야 낫는다는데, 말은 안하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어른들이 모여 앉아 하신 말씀이 “말문이 안 트여서 계속 아프면 상일이한테 주면 된단다.”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일이는 제 아들인데, 애먼 내 아들에게 무엇을 준다는 건지 저는 당시 율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는 남편의 전근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후 원인 없는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무병, 신병이 몸으로 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목 디스크와 어깨 통증에 시달리며 밤낮으로 아팠습니다. 입맛도 없어 밥도 잘 못 먹고,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 처방도 소용없었습니다. 나날이 증세가 심각해져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영양실조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없는데 식사만 계속하며, 갈수록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친구 송복득 보살이 저를 정각사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더도 덜도 말고 딱 일주일만 다녀보자는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가본 정각사에는 밀공정 스승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스승님께서도 일주일만 다녀보라고 강권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원 어디

도 못할 정도로 아플 때였습니다. 가족들은 또 아프나, 절에 가면 낫나, 아프면 병원에 가지지 어딜 다니나, 가족들의 만류와 성화에도 쇼핑백에 염주와 큰 종이를 넣어 매일 버스를 몇 십분 씩 타고 사원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숨도 안 쉬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 옴을 느꼈습니다. 너무 아파서 머릿속에는 일주일만 다니고 안 다니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서원당 아동실에 누워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불공하는데 누워있네, 벽에 기대있네 해도 두세 시간은 있다가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옛세 되는 날 둘째 시간, 아동실을 나와 서원당에서 오마니 반례음을 염송하는데 갑자기 법당이 울리도록 엄청나게 큰 트림이 나왔습니다. 한숨도 스스로 못 쉬었는데 트림을 내면서 드디어 제대로 된 큰 숨이 쉬어졌습니다. 동참불공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 세상이 이렇게 밝고 좋을 수가 있을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모처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놀래 빨리 물어보지도 못하고 눈치를 보는 듯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49일 조상불공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래서 낫는다면 그리해라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각사에서 일주일만 하기로 했던 불공을 마치고도 49일 조상불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또 그 뒤로는 정각사에서 3년 기도불공 정진을 마쳤습니다. 지금의 덕화사가 새로 지어져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병도 모두 나았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함은 새벽불공함에 있고, 한달 동안 행복함은 월초불공함에 있고, 일년 동안 행복함은 새해불공함에 있고, 평생 동안 행복함은 불퇴전에 있느니라. <종조법설집> 중에서

이후에 종조님 말씀을 배우며 큰 깨침이 들었습니다. 이 인연으로 여태껏 총지교도로서 불공할 수 있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저처럼 제도되어 구경 성불하시기를 서원합니다.

“  
원인도 없이  
숨도 안 쉬어지고  
가슴이 답답해  
앉아 있기도 힘들 때  
일주일 불공 서원하고  
염송 이어 가던 중  
옛세째 되는 날  
숨길 찾고 밝은 세상 만나

에도 부처님이 안 계시고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는 오마니반례음을 외우고 있어 사이비 종교 단체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만 다니 건데,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튿날인가 정각원 스승님이 가정불공을 가지자는 겁니다. 일주일만 다녀보자는 결심과 약속이 있었기에 이도 따라갔습니다. 혀도 안 돌아가 숨도 크게 못 쉬고 밥

## 성북동 길상사 이야기

성북동 길상사(吉祥寺)는 삼정각과 오진암과 더불어 당대 3대 요정이었던 약 7,000여 평에 달하는 대원각을 자야(子夜, 본명, 김영한(金英韓, 1916~1999))가 법정 스님에게 기부하여 세운 불가의 도량이다. 당시 금액으로 환산하였을 때, 약 1천억 원 상당의 고급 요정이었던 ‘대원각(大苑閣)’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소유’ 법정 스님에게 시주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야라는 인물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여자 몸으로 38선을 넘어 서울 피난을 와 당시 대한민국 3대 고급 요정 중 하나인 대원각을 설립(1953년)하여 한국 재력가로 성공한 인물이다. 그녀에게는 백석 시인과의 연정에 대한 일화가 전해지는데, 백석은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의 ‘자야오가(子夜吳歌)’라는 시 제목에서 따와서 ‘자야(子夜)’라는 애칭을 그녀에게 지어줬다고 전해진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인 ‘자야’와의 러브스토리는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 만큼이나 듣는 이의 가슴을 찡하게 한다. 백석이 헤어진 자야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가 유명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란 시이다.

평생 백석을 애타게 그리며 살았던 그녀는 폐암으로 1999년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인 1997년 12월 14일 길상사 시주를 받은 법정 스님은 창건 법회에서 그녀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법회에 참석한 수천 명의 대중 앞에서 그녀는 “저는 불교를 잘 모르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제가 대원각을 절에 시주한 소원은 다만 이곳에서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들을 수 있는 맑고 장엄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재산을 시주한 것이 아깝지 않느냐라는 한 신문사 기자의 질문에 “천억 원 재산이 저에게는 백석, 그 사람의 시 한 줄보다 못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도 시를 쓰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화장해 눈 많이 내리는 날

길상사 경내에 뿌려 주세요.”라고 대답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 백석에게로 눈이 폭풍 내리는 날 백석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던 마음을 전한 것이다. 다비식을 마친 그녀의 범법 길상화의 뺨가루는 길상사 경내에 하얗게 쌓인 흰 눈 위에 뿌려졌다.

길상이란 말은 길사유상(吉事有祥)의 줄임말이다. 다시 말해서 부귀와 행복 등 길함의 기운이 인간 현실에서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공덕주 자야의 청아하고 맑은 범종 소리를 흠모하는 수양 정신과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큰 자비심도 함께 담겨있다.

사찰에서 이 단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불, 즉 깨달음을 통해 번뇌로부터 벗어나 부처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깨달음의 의미를 바로 새기고 온갖 번뇌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가르침으로 승화된 용서와 화해를 나눔과 배려로 세상에 성불하는 깨달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자 하는 것이다.

우주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의혹과 번뇌를 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이웃과 더불어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시인, 전 동해중 교장 탁상달



길상화 보살의 보시로 요정에서 수행 전법 도량으로 탈바꿈한 길상사에서 법을 펴던 법정 스님이 입적한 행지실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후원에 감사합니다

9월 21일 ~ 10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우인	10/20	10,000	단행사	지홍	10/10	10,000	사원명 무기명	박필남	10/15	10,000	자석사	지현	10/11	10,000	
	보명심	10/20	10,000		이수형	10/10	10,000		이규성	10/17	20,000		강두희	10/12	50,000	
	공덕성	10/20	20,000	덕화사	이진승	10/7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나석원	9/23	50,000		노점호	9/28	10,000	
	상지화	10/20	10,000		법상인	10/20	10,000		김용기	9/26	20,000		김점남	9/29	20,000	
	수중원	10/20	10,000		김진화	10/10	10,000		오선혜	10/4	10,000		안한수	10/2	10,000	
	밀공정	10/20	10,000	동해사	송인근	10/18	10,000	수인사	수인회일동	10/13	50,000		유승태	10/7	10,000	
	총지화	10/20	10,000		법선	10/20	10,000		법상	10/20	10,000		김미혜	10/7	10,000	
	법수원	10/20	10,000	만보사	김정희	9/21	10,000	시법사	해광	10/12	10,000		초록어린이집	이지희	9/26	50,000
	선도원	10/20	10,000		김정희	10/19	10,000		이순영	10/12	20,000		김정환	10/6	10,000	
	법지원	10/20	10,000	밀인사	정정희	9/28	5,000	실보사	이순옥	10/18	10,000		백귀임	10/11	10,000	
기로스승	일성혜	10/20	10,000		김재영	10/14	10,000		박성호	10/18	10,000		최영아	10/11	10,000	
	사홍화	10/20	10,000	법천사	반야심	9/30	10,000	실지사	황성녀	9/28	10,000		신성희	10/15	10,000	
	안주화	10/20	10,000	법황사	박미경	9/26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9/26	50,000		신현태	10/15	10,000	
	진일심	10/20	10,000		인선	10/20	10,000		정동숙	9/27	50,000		김평석	9/23	10,000	
	시각화	10/20	10,000	벽룡사	정계월	10/20	10,000	양지 어린이집	정동숙	9/27	50,000		포레스타7 어린이집	최유정	9/26	50,000
	최상관	10/20	10,000		승원	10/20	10,000	운천사	해봉	10/5	20,000		강정이	9/25	10,000	
	연동원	10/20	10,000	벗고을 어린이집	묘원화	10/20	10,000		하재희	9/26	50,000		무명씨	10/5	10,000	
	자선화	10/20	10,000		이민선	10/2	50,000	일원 어린이집	연명구	9/27	10,000		강승민	10/11	5,000	
	승효제	10/20	10,000	사원명 무기명	하명순	9/26	10,000		구미자	9/30	10,000		박옥자	10/11	10,000	
단음사	신말심	10/17	20,000		남영애	10/4	30,000		하재희	10/11	100,000		김성찬	10/11	10,000	
	장정숙	10/17	10,000		최영미	10/11	50,000	자석사	도우	10/5	10,000		원당	10/13	10,000	
	하현정	10/17	10,000		김지은	10/11	20,000		도우	10/11	10,000		묘심해	10/13	10,000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10/11	50,000





# 바른 말, 지혜로운 말

말 한 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  
우리 속담에 '말 한 마디에 천냥 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 조상들이 생활에서 지혜를 밝히는 아주 훌륭한 명언이라 하겠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는 참으로 귀중하고 지혜로운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 자기를 표현하고 사회생활을 해 나간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뒤 첫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우며 가족과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자아실현을 하며 살아간다.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이 사실상 말과 그 말을 형상화한 문자로 이루어지니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 말과 소통이 더 중요한 시대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온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뉴스가 전달되고 있다. 옛날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하여 부산에서 서울까지 소식이 닿으려면 보름이 넘게 걸렸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전달과 소통이 이루어진다.

또한 카메라와 녹음 기능의 발달로 공인이나 연예인들은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공유되고 있다. 각종 사회연결망인 SNS가 발달하여 누구나 자기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일인(한 사람) 미디어시대가 되었으니 말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말과 행동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예나 지금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럴수록 더 곤혹스럽고 낭패를 당하는 일도

많아지니 참으로 살피고 살피어야 한다.

### 부처님 말씀 중 '사람의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은 말로 인하여 화를 입기도 하고 말로 인하여 흥하기도 한다. 역사에서 술하게 등장하는 각종 사화나 무수한 옥고들도 무심코 뱉은 한 마디 말이 불씨가 되어 거대한 불길로 번져 멸문지화나 부관참시를 당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서는 바른 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다. 부처님이 깨치고 첫 설법부터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까지 시종 말로써 우리로 하여금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에 이르라고 고구정녕하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의 기록이 곧 불교 경전이다.

부처님께서 말에 대하여 고구정녕 일러주신 지혜의 법문을 보자.

“사람의 화가 세상에 생기는 것은 입으로부터 생긴다. 마땅히 입을 잘 지켜라. 그 독은 맹렬한 불보다 심하니 불은 1세를 태우나 구업은 무수세를 태우며, 맹렬한 불은 세간의 재물을 태울 뿐이나 구업은 성재(聖財)를 태운다. 일체 중생의 화는 입으로부터 나오나 구업은 몸을 쥐는 도구이며 몸을 멸하는 칼날이다.” 『보은경』

부처님께서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신다. 일체 중생의 화는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 불자는 정견을 바탕으로 바른 말을 하자

그렇지만, 말은 누구나 하는 것

이다.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가 문제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할 때 바른 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정견이다. 정견은 바른 견해를 말한다.

바른 견해란 부처님이 깨달은 우주 만물의 존재원리인 중도로 보는 견해를 말한다, 나와 우주 만물은 영원하지 않고 늘 변해간다. 또한 인간은 자연과 우주 만물에서 의지하여 인연으로 존재할 뿐이다. 이것을 모르고 내가 있다고 하거나 또는 없다고 하는 양변에 집착하거나 머물면 실패한 어리석은 견해가 나온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나와 너, 있다와 없다, 선과 악 등의 상대적인 양극단에 집착을 떠나 나와 온 우주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인연법을 바로 보고 말해야 한다.

남을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실패한 말이다. 남을 칭찬하고 도와주고 이익을 주면 바른 말이다.

말을 할 때는 이와 같이 바른 말을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이익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 반대로 남을 속이는 말, 거짓말, 결과 속이 다른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없는 말을 지어내어 하는 말, 남을 해치는 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말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서는 정어, 바른 말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도 정견(正見)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 바로 보면서 바른 말을 함이 생사고해를 해탈하는 고귀한 행이고 인간다운 행이고 인간 완성의 지혜행인 것이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2022 10·27법난 문예공모전 시부문 대상작

# ‘蓮根이여, 蓮根이여 - 10·27 법난을 상기하며’

청화 스님

아무도 부르지 않았거늘  
무어라 검은 안경을 끼고 와서  
온 세상을 거칠게 움켜쥐고  
흰빛나게 빨아야 한다고  
그 숨 막히는 호루라기를 불었던가  
기어 무슨 맘먹고  
방망이질하여 빨래를 하려거든  
오래 때 절은 옷들이나 빨 일이지  
사람들은 왜? 사람들은 왜?

그래, 검은 안경을 끼고 보면  
蓮밭도 한낱 길레로 보이던가  
푸른 연잎들 마구 꺾어  
붉은 연꽃들 마구 꺾어  
그 모진 방망이질을 하다니!  
그것도 미꾸라지 출렁대는 웅덩이들  
잡초 우거진 습지들 다 두고  
하필이면 달빛 은은한 蓮밭에 와서

그랬으니 어찌 어김이 있으랴  
끝내 겨울은 오고 말았다  
방망이질의 그 끝의 계절  
不義는, 不義는 이런 거라고  
法是은 얼음덩이를 던지고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그리하여 성한 데 없는 몸으로  
한 時代가 저무는 山을  
그는 절룩거리며 넘어가지 않았던가.

그렇거늘 蓮根이여  
끌어안지 못할 것이 없는  
넓은 가슴을 가진 蓮根이여  
분노도 원망도 한 때의 불  
이제는 그가 남긴 탁한 물에도

그 때의 흉터를 지운 뿌리를 내리고  
새 연잎 새 연꽃을 피울진저  
또 하나 蓮밭을 만들진저.

## 불교서적 월간베스트(10/1~31)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순위	도서명	출판사	저자
1	담마빠다: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운주사	화령 역주
2	요가디피카(아행가요가1)	선요가	아행가/현천 역
3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명구365(전2권/세트)	불광출판사	무비 지음
4	주경야선:가행정진으로 재가자도 성불할 수 있다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5	낯은 옷을 벗어라:법정 스님 원적 10주기 추모집	불교신문사	법정스님
6	입보살 행론:지복에 이르는 보살의 길+낭송CD	부다가야	산티테마/석혜능
7	디가니까야(2)길게 설하신 경	초기불전연구원	각목 옮김
8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청우당	김원수 지음
9	불법의 대들보 마음챙김(붓다의 고귀한 길따라)	고요한소리	활성
10	반야심경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알아차림	관정

화음사 교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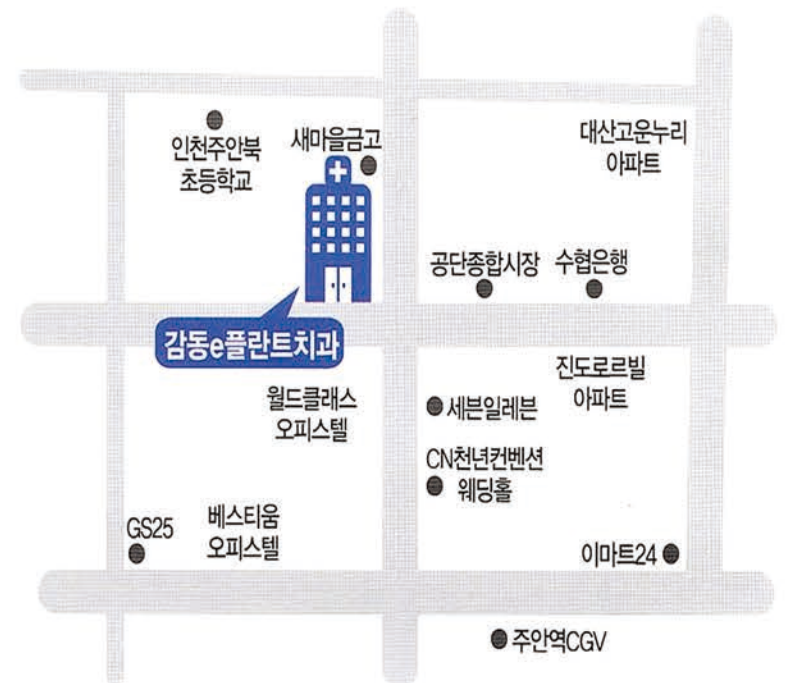
#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 감동e플란트치과

##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2 4,5층



###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 평범한 주부에서 시인, 작가로 <인생을 쓰는 시간> 발간

## 부산 정각사 신정배 교도 며느리 임은자 작가

“마흔 여덟, 생각지도 못한 글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제 아픔과 슬픔, 사랑과 추억을 전하며 힘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정각사 신정배 교도의 며느리 임은자 작가가 인생을 이야기하며 써내려간 에세이집 <인생을 쓰는 시간>을 출간했다.

평범한 주부에서 시인, 작가로 거듭난 저자는 위와 같이 담백한 어조로 자신을 소개한다. 그리고 지난 9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던 글이 어느 날 내 품으로 왔다’는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한 줄의 표현으로 책을 내놓았다.

이 책은 삶의 서사를 코미디, 로맨스, 드라마, 서스펜스, 추리, 액션 등

여러 장르로 전개하며 그 안에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글이라고는 연애편지와 일기쓰기가 전부였던 작가가 우연한 기회에 동시 문학에서 대상을 수여하고, 이후 꾸준한 글쓰기를 통해 성장해가는 모습은 깊은 울림과 여운을 남긴다.

임 작가와 글쓰기와의 만남은 4년 전 마을 도서관에서 이루어졌다. 마흔 살 후반 ‘동시 교실’ 모임에서 쓰기 시작한 글은 수필로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그녀의 세계관은 더욱 견고해지고 넓어졌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집필하는 시간이 점차 인생을 회고하는 기회가 되면서 작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기록을 모아 만든 책이 바로 <인생을 쓰는 시간>이다.

작가는 발간사에서 “소중한 내 인생, 이젠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며 진심을 담아 글을 쓰겠다.”고 밝히며 책이 나오



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써준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전했다. 특히 “늘 가족을 위해 열심히 불공해 주시는 어머니 덕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며 시어머니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신정배 교도도 그 누구보다 우리 며느리가 자랑스럽다며 종단 교도들이 이 책을 통해 위로 받고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김상미 기자

## 부산경남신정회지회 가을맞이 관불



부산경남신정회지회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첫 관불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류길자 지회장을 비롯한 사원 간부 스물 네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순창 강천산의 단풍 산행과 함안 수선사를 참배하며 신심을 증진하고 우의를 다졌다.

고맙습니다

제 99회 추계강공회 승공양

정정심, 자선화, 진일심 스승님  
단음사, 밀인사, 밀행사, 성화사, 실지사  
자석사, 지인사, 총지사 신정회  
김병석(관음사)  
김은숙(서울경인교구지회장)  
류길자(부산경남교구지회장)  
무기명(운천사)  
신말심(단음사)  
오순자(성화사)  
이경화(수인사 신정회장)  
이지은(자석사)

축하합니다

정각사 신정배 교도 손주 김대한 군  
소방공무원시험 합격

### 총지스캐치



### 가로세로 총/지/문/답

①㉠		㉡		②㉢		③㉣		㉤
		④	㉥					
				⑤㉦			⑥	
⑥		㉧					㉨	㉩
		⑧		㉪				
⑨㉫						㉬		㉭
				㉮	*			
		⑬		⑮				㉯***
⑬	**					㉰#		
	⑮							㉱

#### 가로 열쇠

- ① 불교에서 겨울 동안 승려들이 한 곳에 모여 바깥 출입을 삼가하며 하는 수행
- ② 백조의 호수, 무용
- ③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 ④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둘러싸인 바다, 000식 식단
- 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뜻
- ⑥ 수면 상태에서 걸어 다니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질병
- ⑦ 페리오, 2080, 죽염
- ⑧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뜻
- ⑨ 세계 3대양의 하나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양
- ⑩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 정림사지 오층석탑
- ⑪ 고대 동서양의 교역로, 비단길
- ⑫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것
- ⑬ 건물이나 구조물을 세우거나 쌓아 만들
- ⑭ 한라산 백록담에 이르는 가장 긴 코스, 높이 1,215m의 산
- ⑮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
- ⑯ 불교의 이치나 가르침을 말로 풀다

#### 세로 열쇠

- ㉠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다는 뜻
- ㉡ 결인, 왕자와 00
- ㉢ 대조영이 세운 나라
- ㉣ 부산 대표, 국내 최대의 수산 시장
- ㉤ 우리 몸의 피가 온몸을 돌 수 있도록 펌프 역할을 하는 중심 기관
- ㉥ 인구수 세계 1위, 국토 면적 세계 4위 국가
- ㉦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유형의 이야기, 일편단심
- ㉧ 오징어의 한 종류, '00가 쌀밥이라면 오징어는 보리밥'
- ㉨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입한 사건
- ㉩ 불교에서 중생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 부처님
- ㉫ 고려 제 1대 왕
- ㉬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주요 시설
- ㉭ 방 안이나 실내를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 기구
- ㉮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 \* 우유, 달걀, 설탕으로 만든 식품, 휘핑00
- \*\* 불교에서 삼악도 가운데 하나로 죽은 뒤에 짐승으로 태어나 괴로움을 받는 세계
- \*\*\* 인간의 성품은 본래부터 악하다고 보는 순자의 학설
- # 등근 몸에 검정 가시가 박혀있는 해산물

#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구경북교구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철교동길 6-4 (054)761-2466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선림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경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시범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단황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삼말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림길 109 (영선동17가) (051)416-9835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함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효교로78번길 17 (보수동17가) (051)254-5134
홍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백골5길 12 (효자동17가)	(063)224-4358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충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대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경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47길 47 (광안동) (051)752-189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함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함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백골5길 12 (효자동17가)	(063)224-435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백골5길 12 (효자동17가)	(063)224-4358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동혜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 진언 밀법도량 정각사 득락전

“현생에 이고득락, 내생에 왕생성불”

살아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식은 안식을 얻는 기도도량 진언생활 불교총지종 정각사

## 정각사

에서는  
조상님과 가족, 일가친척의 영식 **천도불공**과  
개인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각사 득락전에는 극락왕생과 성불을 서원하는 아미타부처님과 좌우 협시 보살인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셨습니다.



### 영식(영가) 원불

조상영식, 조부모, 부모 등 영식(영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명복과 왕생성불을 개인 원불에 모셔 기원합니다.

**영구불 1기당 100만원(부부에 한해서 한 불상에 모실 수 있음)**

### 기제사 불공

설, 추석, 기제일 등 조상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처님께 추천 불공을 드립니다.

### 소원·축원불

불상에 가족의 이름을 올려놓고 건강과 소원성취,  
재난소멸 등을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축원불 1기당 10만원/1년)**